

현대소설에 나타난 제주여성*

—외지인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 동 윤**

차 례

1. 머리말
2. 김정한의 「월광한」—일탈공간의 '젊은 아주망'
3. 허윤석의 「해녀」— 원시성의 저변(底邊)
4. 황순원의 「비바리」—원초적 삶 혹은 미숙한 야생
5. 오영수의 「후일담」·「실겉이꽃」—수난 속의 억척스러움
6. 정한숙의 「이어도」·「해녀」·「굴밭언덕에서」—절실한 삶과 운명
7. 이청준의 「이어도」—신비적 분위기와 수동적 삶
8. 맺음말

1. 머리말

제주여성은 세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특히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성장하지 않은 경우, 즉 외지인(外地人)들에게 제주여성의 삶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그 의식세계는 어떻다고 보고 있을까. 이는 제주여성의 정체성(正體性)과 관련하여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필자가 여기서 굳이 외지인들의 입장을 살피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 한 측면

* 이 글은 「제주시」, 통권40호(제주시, 1997)에 발표했던 것을 깊고 보태어 쓴 논문이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은 그들이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그들이 대상을 면밀하고 진지하게 보려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한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객관성이 충실하게 확보됐다면, 그것이 대상의 모습을 잘 비춰주는 훌륭한 거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 바람직한 위상을 정립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반면 피상적인 인식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대부분 실상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왜곡된 부분은 여러 방면에서 꾸준한 노력을 전개했을 때만 바로잡히게 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실천을 경주해야 한다. 따라서 외지인들이 견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어떤 부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검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외지인 작가의 작품 가운데 제주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소설들이 꽤 있다. 그 소설들은 제주여성들의 삶의 양상을 읽어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다. 물론 소설에 나타난 사항만 가지고 외지인이 보는 제주여성상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일이지만, 나름대로 일정 측면의 양상은 도출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소설은 곧 사회와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거니와, 문화 연구의 자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관련된 기록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문학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거기에 투영된 제주도의 여러 양상을 추출하여 분석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유용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김정한의 「월광한」—일탈공간의 '젊은 아주망'

김정한(1908~1997)은 경남 동래군 출신으로서, 한동안 남해도(南海島)에 머물면서 작품을 집필했던 적이 있다. 『문장(文章)』(1940.1.)에 발표된 「월광한(月光恨)」은 그 때의 작품인데, “반골작가 또는 사

희성이 짙은 리얼리즘 작가로 정평¹⁾이 나 있는 “김정한의 작품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낭만적 환상적 색채를 띠었다는 점에서 특이²⁾하게 여겨지는 소설이다. “한마디로 김정한의 초기 작품 중에서는 유일하게 연애감정을 서술한 지극히 평범한 연정적인 서정이 낭만적으로 깃들어 있는 작품³⁾인 것이다. 이 작품은 그 공간적 배경이 제주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 여인이 주된 인물로 등장한다.

이 소설은 10년 가까이 하급관리 생활을 해온 화자(話者) ‘나’가 여름철에 S포구로 출장 나갔다가 자택질하던 해녀들을 보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해녀들은 일정 기간 제주도를 떠나 ‘바깥물질’을 하는 ‘출가(出稼)해녀’의 무리였다. ‘은순이’는 그 무리의 일원인 ‘젊은 아주망(아주머니)’이다. ‘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그녀를 만나게 되는데, 며칠 뒤 그것을 계기로 ‘이여도’에 함께 가자는 데 서로 의기투합하여 들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작품의 내용이다.

다음은 ‘나’가 은순에게 처음으로 접근할 때의 장면이다. 은순이의 모습과 인상을 묘사한 부분을 통해 제주여성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그렇수록 나는 연방 더 그의 토실토실한 용모에 반색하였다.—등그스럼한 턱과, 작으마한 입과, 또렷한 콧잔등과, 짧은 듯한 이마 밑에 별같이 빛나며 남국의 섬새악씨답게 정이 소복소복 사모친 듯한 그 아미—나는 일순간에 그것을 다 보았다.

-
- 1) 김종균, 「김정한 초기소설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논문집』22집(한국의국어대, 1989), 55쪽.
 - 2) 송명희, 「해녀의 체험공간으로서의 바다」, 『현대소설연구』제8호(현대소설학회, 1998), 430쪽.
 - 3) 김종균, 앞의 논문, 62쪽.

그는 절에 간 색씨처럼, 잠잠고 우렁승이만 끄내 세었다.
생활이 생활인만큼 손은 아주 영 탄 사람의 손인 듯이 억세고 컸다. 만약 예사 따위가 씩둑걱둑 설프게 덤벙대가는 영락없이 그 손 아귀에 생코만 떠일 것이고, 어찌다가 요행이 운수가 좋아서 제맘에 들기만 하면 땅이 꺼져도 놓진 않을 듯 싶었다.4)

‘나’는 토실토실한 용모를 가진 은순에게서 강렬한 육감적 매력을 느끼고 있다. 누가 뭐라 하든 크게 개의치 않고 잠자코 우렁승이만 꺼내어 세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은순이는 경솔하게 나서지 않는 성격으로 보인다. 어설피게 접근했다가 큰코다칠 것 같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당찬 여성이기도 하다. 또한 “생활이 생활인만큼 손은 아주 영 탄 사람의 손인 듯이 억세고 컸다”는 부분에서 매우 생활력이 강하고 억척스러운 여성임이 암시되고 있다.

나는 한식경이나 혼자서 읊씨년스럽게 도사리고 앉아서, 생개망개한 손님 때문에 아닌 밤중에 잠자리를 빼앗기고, 어린것들이 칭얼거리는 역시 해녀출신의 주인 방에서 상푸등 불평에 가까운 어조로써 무언지 알아먹지도 못할 소리를 이따라 게걸거리는 해녀들의 똑똑한 태도에, 주체님께 제법 못마땅하다는 생각까지 가지며 그 바람에 담배만 자꾸 피웠다.5)

‘나’가 은순이를 만나려고 해녀들의 숙소를 찾아가 기다리는 대목이다. ‘나’는 해녀들의 태도를 무뚝뚝하다고 보고 있다. 그것을 또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강하고 억척스럽기 때문에 수반되는 거칠고 투박한 제주여성의 성격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4) 김정환, 「월광한」, 『문장』 1940년 1월호, 61~62쪽. 띄어쓰기는 지금의 맞춤법에 따라 고치고, 나머지는 원문대로 인용했다. 이하 인용문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처리함.

5) 위의 책, 66쪽.

나오겠다고 해말썫한 얼굴을 가웃 해서 눈짓을 하더니, 가짓부리가 아니라고 다짐이나 하는 듯이 쟁긋 웃어 보이고는, 한땀한땀 제 집으로 돌아갔다. 약간 짧은 듯한 도랑치마 밑의 그 미끈한 종아리가 누엿 누엿한 석양을 가로 받아서 유달리 더 탐스럽게 빛났다.

당팬 아주 영 잊어버린 듯이 한번도 돌아보지도 않다가, 즈집 마루턱엘 썩 올라서고서야 비로소 그는 이쪽을 우두커니 건너다보더니, 금시에 또 모른 척 하고서, 선양으로 옷통을 벗어 던지고는 부채질만 바쁘게 해대었다.

그리다가 머리채를 더풀하게 틀어 얽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불쑥 나와서 무어라고 웅알웅알 아드등거리는 꼴거지가 필연코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모양 같았으나, 은순이는 일변 저고리를 주서 입으면서 되려 더 괄괄하게 기다란 악다구니를 한바탕 때물어 놓기가 바쁘게, 약석빠르게 사ړ 밖으로 쾩 나와 버렸다.

「애기 생 논단이 같은 년! 니네 서방 오건 보자꾸나.」

시어머니는 흐드득흐드득 앙갓지게 오르낸다.

그러나 은순이는 벌써 골목 안으로 사라진 뒤였다.

시어머니는 편잔을 못다 준 것이 어지간히 분했는지 모지라진 몽당비짜루를 찾아 들고서 펜이 마당만 쓱쓱 긁어 채치며 혼자서 한참 굶을 하다가, 코를 한번 행 풀어 던지고는 다시 부엌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⁶⁾

‘나’가 출장 기일을 연기한 채 여관에서 머무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여관을 지나가던 은순이와 ‘이여도’에 함께 가기로 약속한 직후 벌어지는 상황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는데도 며느리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밖으로 나가고 있다. 시어머니의 말을 며느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부관계가 그다지 엄격하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는 결혼과 동시에 독립적인 채[棟]에 거주하고 그에 딸린 각

6) 위의 책, 74~75쪽.

각의 고향을 지남으로써 처음부터 별개의 경험과 주부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생활공간과 경제적 독립을 동시에 얻게 되는 것은 대등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었다.”⁷⁾ 따라서 시 어머니의 권위가 한본토에서처럼 엄격하게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고부간의 갈등도 드러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이 제주에서는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다.⁸⁾ 결국 위에 제시된 소설 인용문은 위계질서가 엄격하지 않고 나름대로 평등구조가 형성된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징을 암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물에 익숙지 못한 나는 차츰차츰 일종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물론, 만약 내 혼자였다면 필연코 외마디 소리를 내질러서면 포구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터이지만, 여자의 몸으로써 노를 짓는 은순이가 늑늑한데 사내로써 무어라고 하기는 아주 영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달이나 어서 떠올랐으면 싶었다. 그러나 그 달이 뜨고 바다 위가 밝아지면 질수록 두려운 생각은 더욱더 일어났다. 여태껏 철썹철썹 소리만 들리던 물결이 검은 구렁이때처럼 비늘을 허번덕거리며 꿈틀꿈틀 차례로 밀려와서는 낮은 뱃전을 아찔하게 떠밀어 버린다. 배가 기우뚱할 때마다 자칫하면 물살이 곧 넘어들 쫓만 같다.

그러나 은순이는 원눈도 깜짝 안한다. 마치 풍세가 조금 사납더라도 우리가 마음놓고 육지를 거닐고 다니듯이. 아니, 그는 바다가 흔들사록 되려 더 흥이 나는 모양이다. 이쪽은 간이 콩나트같이 오그러져도, 배짓는 소리는 뼈격뼈격 자저만 진다.⁹⁾

제주여성의 대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화자 ‘나’가 먼저 접근한 것이지만 일단 만난 다음부터는 그 관계를 은순이가 주

7) 김혜숙, 「가족의 성격을 통해서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여성을 중심으로」,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2』(한울아카데미, 1998), 423쪽.

8)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제주도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에 따른 불만 강도의 수치가 극히 낮게 나타난다.(위의 논문, 414쪽 참조.)

9) 위의 책, 76~77쪽.

도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남성을 리드하는 은순이는 수동성에 지배된 보편적 한국 여성상과는 거리가 있는 개성을 보여”¹⁰⁾주고 있는 것이다. 그 개성은 제주여성으로선 오히려 보편성일 수도 있다. 적극성과 대담성 등은 제주여성의 보편적 특성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은순이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입장으로선 외간남자와 단둘이 호젓한 만남을 갖는 것은 전통적 도덕률에서 볼 때 성적 개방성 혹은 성적 가벼움의 측면에서 이해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은순이는 일시적으로 고향을 떠나 일탈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에서 역시 출장 중인(일상공간에서 일탈한) 남성과 만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김정한의 「월광한」에서는 제주여성의 모습과 성격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드러났다고 판단된다. 그의 작품 가운데에서는 환상적·낭만적 색채를 많이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검토할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 비해서는 그 리얼리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편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소설은 일정 기간 제주도를 떠나 바깥물질을 하는 출가해녀들의 생활상이 반영된 작품이라는 데에서도 의미가 있다.

3. 허윤석의 「해녀」— 원시성의 저변(底邊)

허윤석(1915~1995)은 경기도 김포 출신의 작가로, 그가 언제 제주도를 방문했는지 제주도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허윤석이 「문예(文藝)」(1950.2)에 발표한 「해녀(海女)」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소재로 삼은 소설이다. 최초로 제주 4·3을 형상화한 소설이기도 하다. 4·3 당시 토벌군으로 제주도에 상륙한 ‘김 중령’의 해골부대가 토벌작전 수행 중에 겪

10) 송명희, 앞의 논문, 433쪽.

는 일련의 사건을 소설화한 것이다.

이 소설에는 두 명의 '해녀'가 등장한다. '분이'와 '유모'가 그들이 다. 이 여인들을 통해 우선 느끼게 되는 인상은 '원시성(原始性)'이라는 이미지다.

다음의 인용문에 그려지는 해녀는 '유모'의 모습인데, 특히 그 외모에 주목해 보자.

취 상사는 느티나무를 들어서 굴뚝 머리로 짧은 해녀 한 사람을 덮고 왔다. 해녀는 옷이라고는 치마를 걸친 것뿐으로 붉은 팔을 그대로 느리웠다. 해녀치고는 얼굴이 화안할 뿐만 아니라 산짐승이 사향냄새를 지니듯 짧은 살 냄새를 풍겨주는 것이 더더욱 좋았다.¹¹⁾

반도¹²⁾의 아내인 '유모'는 옷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상태로 나온다. 치마만 입고 윗도리를 걸치지 않은 상태다. 아무리 4·3의 와중이어서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짧은 여성이 윗도리를 입지 않고 다닌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시간적 배경이 10월 말이나 11월초¹³⁾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런 점은 다분히 등장인물의 원시성을 부각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분이'의 성적(性的)인 면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보면 작가가 제주여성에게 부여한 원시성의 측면이 더욱 부각된다.

분이는 그렇게도 쉽사리 고 두령이 하자는 대로 치마, 저구리를 훌적 벗어제끼고는 한참 느리지게 웃고 나서, 그만 수집어한다는 것이, 바람에 휘정대는 그 놈의 땀가지 하나를 똑 꺾어 얼굴을 묻은

11) 허윤석, 「해녀」, 『문예』 1950년 2월호, 24쪽.

12) 재산무장대(在山武裝隊)를 여기서는 반도(叛徒)로 표현하고 있다.

13) 소설에 '여순순천사건 직후'라는 표현이 있다. 여순사건이 1948년 10월 20일 발발했으니, 「해녀」의 시간적 배경은 그 이후라는 것이다.

것뿐으로 붉은 몸을 그냥 내어맡겼던 것이 아닌가! 말같이 영큼한
고 두령의 그늘 지우던 무거운 가슴을 마음껏 느껴본 것도 지금 달
빛에 빛기고 있는 저 대밭이 아닌가!¹⁴⁾

처녀가 쉽게 치마저고리를 벗어던지고 남자에게 몸을 맡기고 있는
장면이다. 무장대의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고 두령이 요구하니
까 ‘쉽사리’ ‘하자는 대로’ 응하고 있다. “땃가지 하나를 똑 꺾어 얼굴
을 묻은 것”으로 수줍은 감정을 표출하기는 했지만, 거의 부끄러움이
없다. 그것뿐이 아니다. 그녀는 한꺼번에 네 명의 사내와 정을 통한
다.

홍분한 손길에 등을 집히운 분이는 일언반구가 없이 고 두령이
하자는 대로 몸을 치레했던 굴가지를 벗어 제끼고 대밭을 향해 앞을
섰다. 이런 밤이면 분이는 으렛껏 이런 사내들을 위하여 살을 내어
맡겨야 할 때가 왔다고만 알았다. 네 사내가 분이를 딸아 대밭으로
들어서자 산허리를 스쳐가는 운무가 때 맞추 달을 물어 주었다.(
……) 분이는 즐겁지도 않은, 설지도 않은 밤이었다. 다만 고 두령
외에 세 사내의 각각 색달은 피부의 비밀을 다시금 느끼면서 몸을
겨우 가누었을 때는, 벌써 달빛은 곰바위 뒤까지 빛이었고 동해안쪽
으로 들어오는 탐조등의 강한 광선이 산허리를 걸쳐 무지개발 드립
듯 했다.¹⁵⁾

여기서 ‘분이’는 위안부(慰安婦)와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것은 거기에 어떤 강제가 주어졌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
적으로 개방적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그녀에게 성적인 도덕률은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분이’는 고 두령을 비롯한 네 사내와
관계를 맺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즐겁지도 않지만

14) 허윤석, 앞의 책, 13쪽.

15) 위의 책, 15~16쪽.

쉽지도 않다고 여긴다. 더욱이 그녀는 고 두령 외에 세 사내의 각각 색다른 피부의 비밀을 다시금 느끼기까지 한다.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상식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성관계가 여기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결합이라는 얘기다.

물론 한반토(韓本土=육지부)에 건주어 볼 때, 제주도에서는 남녀를 그다지 엄격하게 떼어놓지 않아 농촌에서도 이성교제가 꽤 개방되어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래서 제주도 농촌의 혼인은 한반토의 어느 농촌보다도 연애로 맺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견해도 있다.¹⁶⁾ 하지만 그것이 곧 성적인 가벼움이나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평상시의 상황이 아니라 전시(戰時)와 다름없는 상황이라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시적 상태의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이런 서술이 용인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위의 인용문에서 보면, ‘분’이 옷 대신 굴나무 가지를 이용하여 몸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허나 그것은 실상과 거리가 먼 개연성이 없는 상황 묘사다. 굴이 제주도 특산물이긴 하지만 1940년대 후반의 상황에서는 지천에 깔린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 소설에서 제주사람들의 여러 행위가 그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비사실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왜곡된 서술이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다분히 작가가 제주도의 이국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 이국적인 면을 드러내되, 그들의 판단으로 제주도가 뭔가 원시적이라는 느낌을 강조하려 했을 것이며, 그것이 왜곡된 상황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미국영화에 비취지는 인디언들의 모습에 크게 다르지 않다. 점령자의 입장에서 인디언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

16) 이창기, 「제주도의 가족 관계」, 『한국의 발견—제주도』(뿌리깊은 나무, 1983), 185쪽.

소설의 시각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다.

4. 황순원의 「비바리」—원초적 삶 혹은 미숙한 여성

황순원(1915~)은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의 작가다. 그의 「비바리」는 『문학예술』(1956.10)에 발표된 것으로, 제주도 잠녀 「비바리」와 1·4후퇴 때 제주도에 피난온 육지청년 「준」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보목리 처녀 「비바리」는 피난차 서귀포에 와서 살고 있는 육지청년 「준」에게 접근한다. 이 둘은 모두 스물을 갓 넘긴 나이다. 그런데 「비바리」의 「준」에 대한 접근은 매우 노골적이다. 「늑」(1940) 등 황순원의 다른 소설에서도 소극적이고 심약한 남성과 적극적이고 강한 여성상이 적잖이 드러나지만¹⁷⁾ 이처럼 육체적으로 저돌적이다시피 달려드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사나이」(1953)의 「젊은 색시」처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젊은 색시」는 남자의 돈주머니를 훔쳐내 도망가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목욕하는 모습을 은근히 노출하는 등 유혹하는 정도이지 노골적인 육탄공세까지 감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비바리」와 다르다.

「비바리」는 자신이 채취한 해산물을 사달라는 구실로 「준」에게 접근한다.

고개를 들렀더니 웬 젊은 잠녀 하나가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다. 금방 물에서 나온 물기가 가시지 않은 어깨에 감물 들인 형견조각을 하나 걸치고는 한 손에다 전복과 소라가 들어있는 망태기를 들고 있

17) 김영화, 「황순원의 단편소설 1」, 『분단상황과 문학』(국학자료원, 1992), 241쪽.

었다. 전복이나 소라를 팔아달라는 것이었다.¹⁸⁾

처음으로 '비바리'가 '준'에게 접근하는 장면이다. 의도적으로 접근한 비바리는 '첫만남'이면서도 전혀 수줍어하거나 부끄러운 기색이 없다. 더구나 그녀는 옷을 갖춰 입은 상황도 아니다. 이 인용문에 나타난 잠녀의 의상은 "어깨에 감물 들인 형곶조각을 하나 걸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됐다. 이런 표현에서 조심성 없는 잠녀의 성격도 파악 되거니와, 한편에서 보면 이는 제주여성에 대한 다소 비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해녀복이 물론 일상복보다는 노출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형곶조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제주여성들이 미개하고 원시적이라고 인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것이다.

준이는 늘 하던대로 웅덩이로 들어가 낚을 씻고 물 속에 몸을 담겨 땀을 밀어낸 후 석벽 밑으로 들어섰다. 이날도 열 몇밖에 세지 못하고 나오고 말았다. 나오다 웬 한 사람이 웅덩이로 뛰어들기에 쳐다봤더니 바로 비바리였다. 뜻밖의 일에 놀라 얼른 하체부터 물 속에 가리고 앉은걸음을 치는데 비바리는 웅덩이에 몸을 담그는 법도 없이 다짜고짜 석벽 밑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그 틈을 타서 준이는 독으로 올라와 옷을 껴입었다. 노오타이 단추를 채우며 피곳 돌아다보니 비바리는 아래와 젖만 가리운 몸으로 그냥 쏟아져 내리는 물 속에서 서 있는 것이다.¹⁹⁾

'비바리'는 도무지 부끄러움이 없는 여성이다. 총각이 혼자 떡을 감고 있는 곳에 거리낌없이 뛰어들고 있다. 오히려 총각이 놀라 몸을 가리며 도망치고 있다. 그녀는 아래와 젖만 가린 반라(半裸)의 몸을 그대로 남자에게 노출시키고 있다. 여자는 '야생의 처녀'이고 남자는 '문명의 총각'이라는 시각이 엇보인다. 이런 시각에서는 대개 문명의

18) 황순원, 「비바리」, 『문학예술』 1956년 10월호, 16~17쪽.

19) 위의 책, 20쪽.

사람들이 야생의 사람들을 문명으로 교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게 되기 쉽다. 한반토 사람의 우월감이 은근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초닷새 달빛 속에 나타난 것은 비바리와 두 필의 말이었다. 비바리는 준이 있는 데로 오더니 데리고 온 한 쪽 말의 목을 쓰다듬어 주며, 너는 내일 육지로 팔려 간다, 하고는 다른 한 쪽 말 뒤로 끌어다 세우는 것이었다. 그 쪽 말은 으스름 속에서도 등에 흰 점이 들어나 보이는 일록말이었다. 준이는 비바리가 무슨 생각으로 말을 끌고 왔는지 알아채릴 수가 없었다. 뒤로 간 말이 갑자기 코를 붙며 번쩍 앞굽을 들더니 앞의 말의 뒤를 덮쳤다. 준이는 이 피이한 광경에 흠칫 놀랐다. 초닷새 으스름 달빛 속에서 커다란 두 몸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된 것이다. 비바리가 몸을 돌려 준이의 손목을 와 잡았다. 그리고는 끌고 내달리는 것이다. 이 피물에게서 멀리 떠나자는 듯이. 바닷기슭에 이르렀다. 거기서 비바리는 몸에 걸친 것을 훌랑 벗어던지더니 바다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는 준이더러도 어서 들어오라는 것이다. 준이는 얼굴만 화끈거릴 뿐, 어인 영문인지를 몰라 주춤거렸다. 비바리가 바다에서 올라 왔다. 준이에게 닥아오더니 이번에는 대뜸 노오타이 앞섭을 좌우로 잡아 헤치면서 옷을 벗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노오타이 단추가 푹푹 뜯어져 나갔다. (……) 점점 비바리의 손에 힘이 주어지며 눈에 물기가 돌히고 입가에 어떤 미소 같은 게 지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 뜨거운 입김이 준의 목줄기를 와 물었다. 그리고 뿌듯한 어떤 무게에 가슴을 눌리면서 그 무게와 함께 나당굴어 버렸다. 순비기나무 가장이가 몸에 찢렸으나 아픈 줄을 몰랐다. 먼 조각달이 한 번 휘뚝하고 눈앞에까지 닥아왔다가 도로 제자리로 올랐다.²⁰⁾

‘비바리’는 달밤에 암수 한 마리씩 말을 물고와서 짝짓기를 시켜 놓은 가운데 준이를 끌고가 육체관계를 맺고 있다. 유혹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당황해하는 남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있는 상황

20) 위의 책, 21~22쪽.

이다. 아무리 제주여성의 적극성이 여러 면에서 한반도 여성보다 두드러지다고 하더라도, 위 인용문의 장면은 비약이 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단순히 적극적인 애정표현의 차원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도덕이나 윤리에 구속되지 않는 원초적 성을 형상화한 것²¹⁾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면이 형상화되는 것은 다분히 제주여성이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그 '다른 세계'는 외지인들 자신의 세계보다 '열등한 세계'인 것 같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주여성이 뭔가 다른 세계의 인간이라는 인식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이 날도 섭섭으로 건너가 물리지 않은 뉘시를 드리워 놓고 있노라니까, 오래간만에 동등이가 썩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준이가 한눈 파느라고 미처 못본 것을 주인 집 영감이 보고 알려 주었다. 뉘싯대를 잡는 순간 벌써 연간히 큰 것이 물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뉘싯대가 마구 휘었다. 주인집 영감이 달려와 맞잡아 주었다. 들어서 조심조심 끌어올렸다. 그런데 뉘시에 물린 것이 걸핏 물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 준이는 그만 뉘싯대를 내던지며 뒤로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사람의 머리인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죽은 사람의 머리통은 아니요, 산 사람의 것이었다. 머리 다음에 동체가 들어나고 그 다음에 독으로 올라까지 서는 것이었다. 잠녀였다. 잠녀 중에도 다른 사람 아닌 비바리인 것이었다. 입에 뉘시를 물고 있었다. 입술 새로 피가 뱉혀 나왔다. 비바리는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은 아랑곳 않는 듯이 준이만을 바라보았다. 검은 속눈썹 속의 역시 검은 눈이 흐리지도 빛나지도 않고 있었다. 이윽고 비바리는 제 손으로 뉘시를 뽑더니 그 피묻은 입술에 뿔 았았던 미소 같은 것을 띄우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바다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는

21) 장현숙, 『황순원 문학 연구』(시와시학사, 1994), 234쪽.

땀이 있는 선뜻대를 보이면서 물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²²⁾

잠녀 '비바리'가 마치 인어와 다름없이 묘사되고 있다. 김영화는 이를 두고 현지 제주도 사람들이 실소를 하는 대목이라며 리얼리티 문제를 지적했다.²³⁾ 제아무리 수영에 능수능란하고 바닷물을 샅터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뉘싯바늘을 일부러 입에 문다는 말인가. 더구나 20대 초반의 처녀가 남자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현실감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소설 속의 '비바리'는 이처럼 정신적으로 미숙한 야생의 처녀로 황순원에 의해 그려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소설의 말미에 '준'이 제주도를 떠나면서 '비바리'에게 같이 육지로 나가자고 청하는데도, 비바리는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병든 빨치산 오빠를 제주도에 묻히게 하려고 쏘아 죽인 당사자로서 어찌 제주땅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며 '비바리'는 그 제의를 거절했다. 즉 그녀는 출륙(出陸)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면서도 육지청년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해 작품에는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다. '준'의 목덜미가 소녀마냥 희고 나약해 보여서 보호본능을 일으켰던 것일까. 혹 '우월한 문명의 청년'에 대한 '열등한 야생의 처녀'의 막연한 동경심의 발로는 아니었을까. 작가가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의식이 작품 속에 스며들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

아울러 이 소설에는 작가가 서술한 제주도에서의 부부간 역할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22) 황순원, 앞의 책, 18쪽.

23) 김영화, 「제주 소개 외지인의 문학」, 『변방인의 세계』(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159쪽.

언제나 말이 적은 조용한 내외였다. 발농사 조금과 돼지 한 마리와 닭 십여 마리를 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제주도의 풍습대로 장날이 되면 마누라가 그 동안 받아 두었던 달걀을 채롱 속에 담아 가지고 내다 팔았다. 발농사도 거의 마누라가 짓는 눈치였다. 닭에게 조개 껍질 같은 것을 뺏아준다든가, 돼지우리에 풀을 배어다 들어뜨려주는 일까지 마누라가 도맡아 했다. 영감은 그저 어린 손자나 보는 게 일인 것 같았다. 앵을 재울 때는 뜰에서 있는 밀구슬나무 그늘 밑에 광우리를 내다 놓고 그 속에 어린 것을 놓히고는 대구 혼들어대는 것이다.²⁴⁾

어린 손자를 데리고 사는 중늬은이 내외의 삶이 그려져 있다. 일부 외지인들에게 제주도에서는 여자가 일을 하고 남자가 아기를 본다고 알려졌는데,²⁵⁾ 그런 인식이 이 인용문에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호기심 많은 외지 사람들의 허풍이 좀 섞인 표현이다. 발농사와 해산물 채취가 주된 생업인 제주에서는 여성

24) 황순원, 앞의 책, 16쪽.

25) 이재수란 때 조선 조정의 명을 받들어 진상을 조사하러 왔던 고종황제의 고문인 W.F.센즈는 제주에서의 남녀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그러한 외지인들의 인식을 드러내는 일례다. 필자로선 그 내용의 신빙성에 다소 의문이 가는 자료로 여겨진다.

“세상과는 동떨어진 제주도의 남자들은 열등한 존재였고 여자들은 만능인이었다. 그녀들이 진짜 가장이었고 모든 재산의 소유자였다. 아이들은 외가의 성을 이어 받으며 여자들은 한 남자와 평생토록 살지도 않았다.

(……) 세 군데의 읍내에만 소수의 남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의 개항장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묵인해주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이들과 유배당한 정치범들이 이 섬에 늘 살고 있는 남자의 전부이며, 여자들은 이 섬의 공적인 문제까지 장악하고 있다. 이것은 모계사회 이상가는 사회이며 진짜 아마존사회이다.”(W.F.센즈, 『조선의 마지막 날』, 김훈 옮김(1986), 미완, 11장 서문. 송성대, 『제주인의 해민정신』(제주문화, 1996), 257쪽에서 재인용.)

이 집밖에서 하는 일이 육지 여성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주도 남성들은 일을 적게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모양인데, 그것은 가부장제적 관점이다. 여성은 집안의 일을 맡아 하며 남성을 내조해야 한다는 관점의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밖에서 남자 못지 않게 많은 일을 하는 제주여성상을 보며 온갖 일은 도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이다. 그렇다고 분담해서 양육을 맡기도 하는 남성들이 놀고 먹는 식으로 묘사되는 것은 오해다. 남성들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이 척박한 환경에 사는 제주 사람들의 운명인 것이다. 제주의 실정에 대한 몰이해로 이런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외지인들이나 이런 소설을 읽은 외지의 독자들은 제주도 부부의 역할에 대해 작가와 똑같은 오해를 부지불식간에 하게 되는 것이다.

5. 오영수의 「후일담」·「실겉이꽃」—수난 속의 억척스러움

오영수(1914~1979)는 경상남도 울주에서 태어났다. 오영수는 제주도 몇 번 여행한 바 있으며, 비교적 제주도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작가였다.²⁶⁾ 그는 제주 관련 소설로 「후일담」(1960.6)과 「실겉이꽃」(1968.3)을 남겼다.

「후일담」의 제주여인은 수난당하는 여인이다. 4·3의 소용돌이 속에서 온갖 수난을 겪다가 희생당한 여인의 삶이 그려져 있다. '박 중위'가 중사 시절 제주도 4·3 토벌에 투입됐을 때 하숙하던 민가에서 만난 국민학교 교사 부인의 비극적인 삶이 그려진 작품이다. 교사부인은 빨치산 앞잡이로 몰려 집단 총살장으로 끌려가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집으로 돌아와 마룻장 밑 광 속에서 숨어지낸다. 그러다가 박 중위 덕으로 양민증을 얻고 햇빛을 보며 살게 됐으나, 박 중위가

26) 김영화, 「제주 소재 외지인의 문학」, 앞의 책, 161쪽.

의지로 진출을 가자 한국전쟁시에 있었던 예비검속에 걸려들어 수장(水葬)당하고 만다. 그녀를 통해 제주여인상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그런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억척스러움 또는 강한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억척스런 삶은 상당부분 박 중위의 도움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그다지 뚜렷하게 부각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

「실겉이꽃」에는 국민학교(초등학교) 여교사인 제주도 처녀 '부해정'과 그녀의 여고시절 스승인 '그'와의 소박한 사랑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다음은 이 소설의 첫 부분이다.

그가 부산시 K여고에 재직시 그의 담임반에 제주도가 고향인 해정(海貞)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별 두드러진 특징도 없고 성적도 중상 정도였다. 그러나 그가 해정이를 좋아한 것은 해정이가 그를 무척 따르기도 했지만(여학교에서는 삼가야 할) 그가 지도하고 있는 문예반 반원이었기 때문에 자주 또 가까이 대할 수 있었다는 것과, 까바라지지 않고 순진하고 밝은 성격 때문이었다.

해정이는 저들끼리의 그룹이나 또는 특별히 친한 동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사지 않은 대신, 좀 세련되지 못한 순박성과 무의식중에 튀어나오는 섬 사투리 같은 이런 핸디캡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래서 그는 간간 해정이를 잡고 섬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시키고 또 재미나게 듣기도 했다.²⁷⁾

'까바라지지 않고 순진하고 밝은 성격'과 '좀 세련되지 못한 순박성'을 지닌 해정은 작가가 생각하는 제주여성의 한 이미지일 것이다.²⁸⁾ 이 부분만 보아서는 해정이 다소 소극적인 여성일 듯 하지만,

27) 오영수, 「실겉이꽃」, 『현대문학』 1968년 3월호, 122쪽.

점차 그렇지 않음이 드러난다. 그녀는 매우 대담하고 억척스러운 여
인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상당히 지혜로운 면도 있는 여성이다.

부산에서 여고를 나온 해정은 B대학에 진학한다. 대학 재학 중 아
버지의 우격다짐으로 제일교포와 원하지 않는 약혼을 한다. 어느날
그 약혼자가 카바렌지 요정인지에 데리고 갔다가 거기 마련된 방으
로 끌고가며 육체관계를 요구하자 그녀는 강력히 거부한다.

“안 들어가겠다고—집으로 가자고 버티니까 막 억지로 끌어넣잖아
요 한 손에는 뺨을 들고 한 손으로는 문짝을 잡고 한사코 버티는
바람에 그만 문짝이 넘어지고 웨이트리스가 놀래서 달려오고—그새
나는 그만 복도를 빠져나왔지요 복도를 빠져나가는 내 뒤에다 대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웨이트레스에게 몇 번 아무개를
태려다 달라고 고향을 질렀어요”

(……)

“안 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어요 그날로 약혼반지와
함께 글 몇 자를 적어서 등기로 보내버렸지요”²⁸⁾

이 인용문에서 보면 해정은 상당히 지혜롭고 사리(事理)에 밝은
여인이다.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돈만 있는 속물인 약혼자
와는 도저히 결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과감히 파혼을 선언하고 있
다. 앞서 살펴본 「해녀」의 ‘분이’나 「비바리」의 ‘비바리’와는 전혀 이
질적이다. 그것은 원시성·야생성을 지닌 ‘분이’나 ‘비바리’와는 달리
해정은 대학을 다니던 엘리트 여성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때 대학을 중퇴한 부혜정은 얼마 후 에월의 E 국민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가 해정과 소식이 닿게 되자, 해정의 초청으로 제주도를

28) 김영화, 「제주 소재 의지인의 문학」, 앞의 책, 163쪽.

29) 오영수, 앞의 책, 138쪽.

방문한다. 해정은 찬거리를 장만하기 위해 ‘물질’(바다 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한다. 국민학교 여교사가 물질하는 것은 다소 현실감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³⁰⁾ 이러한 리얼리티의 부족은 아마도 작가가 지나치게 부해정이 제주여인임을 의식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제주여성이 생활력이 강하다는 것, 제주도에 잡녀가 많다는 것 등을 너무 의식하다보니 다소 현실감이 결여된 인물이 그려진 것이다. 그리고 이 소설이 제주의 풍광이나 풍물을 소개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점도 부해정을 물질하는 여교사로 만든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오영수의 소설에 나오는 제주여성은 억척스럽고 생활력이 강하여 수난에 굴하지 않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작가의 선입관이 작용하여 현실감이 떨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

6. 정한숙의 「이여도」·「해녀」·「굴밭 언덕에서」—절실한 삶과 운명

정한숙(1922~1997)은 평안북도 영변 출신이다. 그는 몇 차례 제주도를 찾았으며, 제주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면서 이들을 통해 제주의 역사나 문화, 나아가 설화나 민요를 전해 들었다³¹⁾고 한다.

「해녀」(1964.5)는 해녀들의 절실한 삶과 운명이 비교적 잘 그려진 소설이다. 해녀가 제주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 작품을 반드시 제주도를 배경으로 삼은 소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여러 차례 제주를 방문했고 「석비(石碑)」(1959.11), 「이여도(IYEU島)」(1960.12), 「굴밭 언덕에서」(1968.11) 등 제주도를 소재로 한 작품을

30) 김영화, 「제주 소개 외지인의 문학」, 앞의 책, 163쪽. 김영화는 같은 글에서 실겉이꽃에 관한 전설이 제주에 있다고 한 것도 이 소설이 현실감이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라 했다.

31) 위의 책, 163~164쪽.

발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녀」 역시 제주도 관련 작품으로 여겨진다.

열아홉 살의 해녀 '효순'과 스물다섯 살인 그녀의 언니 등이 이 작품에 나오는 여인들이다. 효순은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형부를 모두 바다에서 잃었다. 그러기에 그녀는 물론 그 마을 해녀들은 뱃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효순은 뱃사람인 '성균'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배를 그만 탈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몸을 허락한다. 결국 배를 타고 나간 성균을 기다리면서도 다시 물결에 나서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끝난다. 운명적 삶이라는 인식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제주여성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엿보인다. 물론 문학작품에 사용된 비유적인 표현임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 누앙스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땀줄에서 떨어진 우리들은 바닷물에서 배꼽이 아물었고
가시갈던 잔뼈는 바닷물 속에서 산호가지모양 살찌 올라 피부는 이젠
고기비늘모양 탄력이 생겼다.³²⁾

너울거리는 해초 밀엔 고기떼가 뿔어 놓고 간 머울거리는 알 속에서
해야릴 수 없는 잔고기들이 꼬리를 흔들며 물구비를 타고 떠
흐른다. 그 뒤에는 언니도 귀네도 옥순이 어머니도 그리고 마을 아
낙네들이 수경을 쓰고 해엄치며 지나갔다. 바다 물속에선 그녀들의
살결도 유난히 희어 보인다.

수경은 어안(魚眼), 팔과 다리는 지느러미…….

틀림 없이 그것은 바다고기 못지 않는 고기떼였다.³³⁾

피부가 “고기비늘모양 탄력이 생겼다”고 하는가 하면, “수경은 어안(魚眼)”이고 “팔과 다리는 지느러미”와 같아서 “바다고기 못지 않

32) 정한숙, 「해녀」, 『문학예술』 1964년 5월호, 16쪽.

33) 위의 책, 39쪽.

는 고기”라고 해녀들을 묘사하고 있다. 절반은 고기와 다름없다는 인식이다. 이 점은 다음의 같은 작가의 소설 「굴밭 언덕에서」의 예에서 보듯 제주도 해녀가 ‘인어’와 비슷하다는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섬마을의 처녀들도 청년들에 못지 않게 모험심이 강했다. 어렸을 때부터 전설과 설화를 믿고 자랐기 때문인 것 같다. 그녀들이 몸에서 지니고 있는 유일한 무기란 해녀(海女)라는 이름뿐이다.

섬 처녀들은 수많은 나날을 물 속에서 살아야만들 했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들의 흰 팔은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닮았고 그녀들의 긴 다리는 해심을 쥔 줄 아는 꼬리를 본받아 이제는 해풍도 파도도 겁 날 것이 없었다. 그녀들은 지칠 줄 모르는 인어(人魚)가 되었다.³⁴⁾

황순원의 「비바리」와는 달리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인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물론 거친 바다를 헤치며 당차게 살아가는 제주여성의 강인성이 드러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 뉘앙스를 보면 뭔가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이 작품에서는 또한 제주여성의 성적인 가벼움에 대해 단편적으로나마 비춰진 경우가 있다.

독한 토주에 취하여 민요라도 흥얼거리고 나면 가슴이 후련했다. 그래도 울분이 가시지 않을 땐, 이곳에 흔하게 많은 돌..., 그 돌만큼이나 많은 제집을 마음껏 품어 껴안고 애무하면 족했다.³⁵⁾

제주도에서의 남녀간 성관계가 상당히 자유롭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울분이 가시지 않을 땐” “돌만큼이나

34) 정한숙, 「굴밭 언덕에서」, 『제주도』 36호(제주도, 1968), 264쪽.

35) 위의 책, 262쪽.

많은 계집을 마음껏 품어 껴안고 애무하면 족했다”는 표현은 남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여자를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주도가 낭만적 공간임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저변에는 다분히 부정적 인식이 깔린 서술로 보인다.

이 섬의 시조(始祖)는 각기 다른 성을 가진 세 형제가 섬을 가꾸고 다스렸다고 한다. 그 세 형제에게 시집오기 위해 동방의 조그만 섬나라에서 세 공주가 배를 타고 왔다고 한다. 지금은 그 세 형제들의 후손은 얼마 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섬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설화를 믿고 있었다. 신랑을 찾아 거센 풍랑을 찾아온 그 세 공주의 성품을 닮아 섬처녀들은 진취성이 있었고 활동적이며 행동적이었다.³⁶⁾

삼성신화(三姓神話)에 나오는 벽랑국에서 온 세 공주의 성품과 제주여인의 그것을 일치시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진취성이 있었고 활동적이며 행동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이 작가가 제주 여성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인 것 같다.

경수의 어머니는 섬에 살면서도 해녀가 아니었다. 해녀가 못되었기에 섬을 지키며 살았는지 모른다. 넘실거리는 수평선만 바라보며 섬밖을 벗어날 생각을 못하고 노을이 진 바다 위로 배를 타고 나갔던 남편을 기다리며 살았는지 모른다. 처녀시절로부터 품었던 꿈을 이루지 못했기에 아들을 보고 물에다 자리를 잡으라는 것이었을까…….³⁷⁾

출륙에 대한 제주여인들의 생각이 나타나 있는 대목이다. ‘경수의

36) 위의 책, 274쪽.

37) 위의 책, 266쪽.

어머니'는 처녀시절부터 섬 밖으로 나가고 싶었으면서도 차마 벗어날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다. 섬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갇혀 있다는 인식을 하며 따라서 섬을 벗어나고 싶은 감정을 늘 품고 살아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거기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이요, 그것이 운명이라는 인식을 한다.³⁸⁾ 경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기에 단지 해녀가 못 되어서 섬을 떠날 생각을 못했다는 관점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섬사람들의 보편적인 감정을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이창준의 「이어도」에 나오는 제주인들의 출륙에 대한 의식과 관련하여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한숙의 「이어도」에서는 '장길자'가 인상적으로 부각되는 제주여성이다. 그녀는 학교 다닐 때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연극에서 '순복'과 함께 주연했던 인연으로 그와 결혼한다. 그러나 길자는 순복이 군대간 사이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제주를 떠나게 된다. 얼마 후 제대한 순복은 길자를 찾아 헤매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하자 바다에 몸을 던진다. 그 며칠 후 길자가 귀향하여 남편의 자살 소식을 전해듣고는 그를 가슴에 묻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간다. 제주여성으로서의 독특한 점보다는 한국의 보편적인 여인상이 제시된 느낌이다.

요컨대 정한숙의 생각은 제주여인의 절실한 삶이 운명적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그래서 그녀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다만 정한숙 역시 제주여인들은 체질적·본질적으로 뭔가 다르다고 보는 관점이 없지 않다.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역경과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인 듯하다.

38) 설문대할망 설화는 이런 의식이 반영된 설화다. 허춘은 이 설화가 "제주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운명과 본토에 대한 선망을 나타낸다"면서 "여기에서 육지에 대한 두 의식—동경과 체념을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허춘, 「설화(說話)에 나타난 제주여성고(濟州女性考)」, 『탐라문화』16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6), 7쪽.)

7. 이청준의 「이어도」—신비적 분위기와 수동적 삶

이청준(1939~)은 전라남도 장흥 출신의 작가다. 『문학과 지성』(1974.가을)에 발표된 「이어도」는 제주를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은 천남석 기자의 여자인 '술집여인'과 천남석 기자의 '어머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분위기는 다분히 몽환적이고 신비적인 면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매우 야릇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점들은 추리소설적 플롯을 지니고 어떤 불분명한 사실을 하나씩 규명해 가는 이 소설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도>는 뱃사람들만이 단골로 다니는 술집 같았다. 소위 홀이라는 것은 없고 술손들은 모두가 방이 아니면 마루로 올라앉아 끼리끼리 낭자한 취기들을 즐기고 있었다. 양주호와 선우 중위는 그 중 손님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안방 비슷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한 여자가 곁에 있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잡아 앉기가 무섭게 부르지도 않은 술상부터 미리 받쳐들고 들어온 여자였다. 좁고 둥글둥글한 얼굴에다 살이 뱀 참빛질로 긴 머리채를 보기 좋게 빗어 묶고 있는 여인의 몸맵시는 마치 무슨 암무당의 외동딸이라고나 해야 알맞을 만큼 야릇한 분위기를 담고 있었다.³⁹⁾

작품에서 '이어도의 미인'으로도 표현된 '술집여인'에 대해 묘사한 부분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인의 분위기다. "암무당의 외동딸이라고나 해야 알맞을 만큼 야릇한 분위기"라는 표현에서 볼 때 신비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암무당의 외동딸'이라는 표현

39) 이청준, 「이어도」, 『문학과지성』 1974년 가을호, 525~526쪽.

은 이 소설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마치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인 느낌마저 있다. 아울러 그녀의 행위들 또한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중위의 말이 떨어지자 그녀는 비로소 습기를 썬 씨앗처럼 천천히 그 답답한 침묵의 껍질을 벗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입을 열어 말을 하는 일이 없었다. 그녀는 침묵으로 말을 하고 몸으로 말을 했다. 그녀는 남자가 정말 섬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된 것을 알자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이었다. 스스로 자리를 펴고 스스로 불을 켜고 스스로 옷을 벗었다. 중위가 다가가자 그녀는 별로 긴장을 하는 빛도 없이 고스란히 그를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그 중위의 체중을 지그시 견디면서 무엇인가를 또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 끈질긴 침묵의 수렁 속에서였다. (……) 하지만 여인의 그 수렁 같은 침묵에도 결국은 바닥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중위가 한참 더 정신없이 지껄여대며 여인을 확대하고 난 다음이었다. 여자에게서 마침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우 중위로선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괴한 반응이었다. 여인의 입술에서 문득 희미한 웅얼거림 소리 같은 것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신음 같기도 하고 한숨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마치 제주도의 바닷가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바다 울음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그 웅얼거림은, 그러나 자세히 들어 보니 이어도, 그 오랜 제주도 여인들의 슬픈 민요가락이었다.⁴⁰⁾

위 인용문에 나타난 행동에서도 그녀는 역시 뭔가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닌 듯한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그녀는 아무 거리낌없이 스스로 그날 처음 본 남자에게 몸을 맡긴다. 그리고 성행위를 하는 동안 줄곧 침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어 이어……' 하며 슬픈 민요가락을 웅얼거리고 있다. 소설의 표현대로 '기괴'하기까지 하다. 어찌서 그랬을까. 다음의 '술집여인'의 생애가 서술돼 있는 대목은 그런

40) 위의 책, 545~546쪽.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여인은 처음부터 자기 내력조차 분명히 알질 못하고 있었다. 여인의 부모는 그녀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렸을 때 이미 수평선을 넘어가 버렸고(천남석이 그랬듯이 여인도 번번이 그렇게 말을 했다.), 여인이 아직도 회미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그녀의 어린 오라비는, 좀더 나중에 그가 혼자서 배질을 할 수 있을 만큼 팔심이 올랐을 때 다시 그 수평선을 넘어가 버렸다. 여인의 머릿속엔 간간이 그런 회미한 기억들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처음부터 그녀는 세상을 혼자서 살아온 거나 다름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그 바닷가 마을들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저절로 철이 들고 저절로 여자가 된 것이었다. 여자가 되어 가면서는 점점 더 큰 마을을 찾아가다니며 바닷사람들에게 술을 팔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천남석을 만나서 술집여자 겸 한 사내의 괴상한 계집노릇이 시작된 것이었다. (……) 천남석은 여인에게 두 가지 해피한 버릇을 숙명처럼 길들여 놓고 있었다. 여인이 섬을 떠나지 않는 한 잠자리에선 언제나 그 이어도의 노랫가락을 울조리도록 한 것이 그 첫 번째였다. 그리고 천남석이 여인에게 길들이고 있었던 두 번째 작업은 그녀의 미래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다. 여인은 언젠가 자기의 사내인 천남석이 다시 섬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때 반드시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남자에게 옷을 벗도록 해놓고 있었다.⁴¹⁾

어렸을 때 부모와 오빠를 잃고⁴²⁾ 혼자가 된 그녀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술집 여자가 됐다. 그러다가 천남석을 만났고, 그에게 해피한 버릇이 숙명처럼 길들여진 것이다.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여인이 떠돌아다니다가 기대게 된 남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이다. 가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 자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비슷한

41) 위의 책, 546~547쪽.

42) 그녀가 부모와 오빠를 잃은 것을 두고 작품에는 모두 '수평선을 넘어가 버렸다'고 표현됐는데, 이는 그들이 육지부로 나갔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다에서 실종됐거나 목숨을 잃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처지에 있는 천남석에게 이끌렸다고 볼 수 있다. 이 연인에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억척스러움이나 강인함 따위는 아니다. 외존적인 면이 강하며, 운명에 순응하고 있다.

소년의 어머니는 이 날도 물론 언덕배기 자갈밭에서 아침부터 계속 들을 추리고 있었다. 그리고 소년의 어머니는 점심 때가 되어도 끼니마저 잊은 채 설새없이 그 이어도 노랫가락만 웅얼웅얼 울조려대고 있었다. (.....) 어머니는 점심 때가 훨씬 지나서 진눈깨비가 날리기 시작해도 언덕을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 저녁 때가 거진 되어갈 때까지도 소년의 어머니는 언덕을 내려오는 기척이 없었다. 어둠이 바다 쪽에서부터 서서히 섬을 덮어오기 시작했을 때에야 비로소 소년은 어머니를 찾으러 언덕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소년이 그 언덕계로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때가 늦고 있었다. 소년의 어머니는 치마폭에 들을 싸안은 채 언제부턴가 밭이랑 사이에 축축하게 몸이 젖어 누워 있었다.⁴³⁾

‘소년’, 즉 천남석의 어머니는 남편이 고기잡이 나갔다가 실종되자 그것을 견디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생을 마감하고 있다. 남편 잃은 슬픔에 노랫가락만 울조려대면서 밭일을 하다가 쓰러지고 있다. 현실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녀의 삶은 주체적이거나 능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이 소설에 나오는 여인들은 상당히 의존적이며 수동적이다. 천남석의 어머니는 남편에, 술집여인은 천남석에게 거의 전적으로 얽매어 있다. 물론 그것은 그녀들의 삶이 운명적인 것이요, 그 운명은 자신들의 남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생애가 그렇게 펼쳐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러한 여성들의 삶은 상당히 나약하고 종속적이어서, 독립심이 강한 제주도의 여인상과는 꽤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43) 이청준, 앞의 책, 539쪽.

이청준의 「이어도」에서 제주여성들의 분위기가 몽환적이고 신비적으로 묘사된 것은 이 소설이 인간의 숙명적인 죽음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 작품을 소설미학적 측면이 아닌 문화적인 자료로 볼 때는 제주여인의 실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청준이 제시한 수동적·종속적인 여인상은 제주여인의 속성과 꽤나 거리가 있는 것이다.

8. 맺음말

흔히 제주도의 여성들은 생활력이 강하고 독립정신이 투철하다⁴⁴⁾는 말을 한다. 그것은 다분히 긍정적인 면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외지인들의 경우 제주여성의 삶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인 면에만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앞에서 살펴본 외지인 작가의 소설들을 통해 검토할 때, 제주여인들이 생활력이 강하고 억척스러운 면이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데(김정한 「월광한」, 오영수 「실겉이꽃」, 정한숙 「굴밭 언덕에서」 등), 이 점은 긍정적인 면에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된 경우도 적지 않다. 원시성을 띠고 야생의 상태로 묘사되는가 하면(허윤석 「해녀」, 황순원 「비바리」), 이질적인 세계의 사람처럼 신비적이고 환상적으로 그려지기도 한다(정한숙 「해녀」·「굴밭 언덕에서」, 이청준 「이어도」). 나약하고 종속적인 면이 드러난 경우도 있다(이청준 「이어도」). 성적으로 가뻐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허윤석 「해녀」, 황순원 「비바리」, 정한숙 「굴밭 언덕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제주인들 자신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44) 김혜숙, 「제주여성의 특징」, 『제주도지(濟州道誌)』제2권(제주도, 1993), 1368쪽.

당사자가 아닌 외지인들은 또 다른 입장에서 다른 면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터무니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비약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고 본다. 이 글에서 살피지는 못했지만 제주도 출신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해 본다면 그런 면이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⁴⁵⁾ '자청비' 같은 설화 속 제주여성의 이미지와도 잘 부합되지 않는다. 대부분 관광객과 같은 입장에서 가볍게 바라보며 얻은 피상적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것이기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이 글에서 다룬 대부분의 작품들은 제주여성의 삶을 그리는 것에 주안점을 둔 소설들이 아니다. 그러기에 필자가 다소 확대해석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대상으로 삼은 작품들은 1940년대부터 1970년대 전반기까지 약 35년간 발표된 것들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는 과거의 그런 시각들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 기본적인 인식은 크게 바뀌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살피본 소설들은 모두 우리 문학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지니는 작가들의 작품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많은 독자들은 이런 작품들을 통해 제주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느껴 알게 되는 제주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이러한 인식이 외지인의 의식세계를 상당부분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아가 그것은 역으로 제

45) 물론 제주도 출신 작가들이 제주여성들에 대해 더 잘 묘사했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주에 대한 애정 때문에 주관적인 면이 많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사실이 과장되거나 은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주도 출신 작가들의 취재가 훨씬 잘 이루어졌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에 의해 제주여성이 더 자세히 묘사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도 출신 작가의 작품과 외지인 작가의 작품을 비교 검토해 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주도민의 의식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적 시각은 지역제일주의나 향토지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중의 왜곡성과 폐해를 바로잡음을 뜻하는 것이다. 문학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응할만한 작품들이 씌어져야 한다. 대응할 수 있는 작품이란 제주사람의 참된 모습을 삶과 역사에 천착하여 생명력 있게 그려내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이 그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문학만의 독자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지방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정리,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대폭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소위 '세방화(世方位; glocalization)' 시대에 제주가 그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살아남는 길이다.

<참 고 문 헌>

<자료>

- 김정현. 「월광한」. 「문장」, 1940년 1월호. (한강문화사 영인본, 1986.)
 오영수. 「후일담」. 「현대문학」, 1960년 6월호.
 _____. 「실겉이꽃」. 「현대문학」, 1968년 3월호.
 이청준. 「이어도」. 「문학과지성」, 1974년 가을호.
 정한숙. 「이어도」. 「자유문학」, 1960년 12월호.
 _____. 「해녀」. 「문학예술」, 1964년 5월호.
 _____. 「굴밭 언덕에서」. 「제주도」 제36호. 제주도, 1968.
 허윤석. 「해녀」. 「문예」, 1950년 2월호.
 황순원. 「비바리」. 「문학예술」, 1956년 10월호.

<논문·단행본>

- 김영화. 「분단상황과 문학」. 국학자료원, 1992.
 _____. 「변방인의 세계」. 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김종균. 「김정한 초기소설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논문집」 제22

영주어문 제1집(1999)

집. 한국의국어대학교, 1989.

김혜숙. 「제주여성의 특징」. 『제주도』제2권. 제주도, 1993.

-----. 「가족의 성격을 통해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 『제주사회문
2』(신행철 외). 한울아카데미, 1998.

송명희. 「해녀의 체험공간으로서의 바다」. 『현대소설연구』8호. 현대
소설학회, 1998.

송성대. 「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문화, 1996.

이창기. 「제주도의 가족관계」. 『한국의 발견—제주도』. 뿌리깊은 나
무, 1983.

장현숙. 『황순원 문학 연구』. 시와시학사, 1994.

허 춘. 「설화에 나타난 제주여성고」. 『탐라문화』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